



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February 2026 Issue | Vol. 12

SPECIAL POINTS OF INTEREST

- 외국인직접투자(FDI) 순유입,
4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 — page 1-2
- LEDAC, 공공 신뢰 회복 위한
21개 핵심 법안 승인 — page 3-4
- 필리핀, 관세 승리로 관계 안정
속 미국과 무역협정 논의 일시 중단
— page 4
- NRA 제안, 즉각적 해결책으로는
간주되지 않아 — 국세청(BIR)
— page 5
- 부패 수사와 낮은 인프라 투자로
필리핀 경제 회복 불투명 — ANZ
— page 5-6
- 아태 지역 전반에서 여행세는
표준 관행 — 티에자 회장
— page 6-7
- BSP: 하반기 경제 회복 전망
— page 7-8

UPCOMING EVENT

- [March 23, 2026] KCCP 제31회
연례 정기 총회 — page 9

외국인직접투자(FDI) 순유입, 4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

February 11, 2026 | Katherine K. Chan | BusinessWorld

필리핀으로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FDI) 순유입액이 11월에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 · BSP)이 밝혔다. 다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소폭 감소했다.

화요일 발표된 BSP의 예비 자료에 따르면, 11월 FDI 순유입액은 8억9,700만 달러로, 2024년 같은 달의 9억 달러에서 0.3% 감소했다.

전월 대비로는 10월의 6억4,200만 달러에서 39.7% 증가했다.

11월 FDI 유입액은 7월의 12억7,100만 달러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중앙은행은 성명을 통해 “2025년 11월 필리핀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8억9,700만 달러의 순유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최대 투자국이었으며, 유입 자금의 대부분은 해당 월 제조업 부문으로 향했다”고 덧붙였다.

BSP 자료에 따르면, 11월 지분 및 투자펀드 지분에 대한 투자는 1년 전 1억900만 달러에서 1억8,700만 달러로 71.6% 급증했다.

이익 채투자를 제외한 지분자본 순투자는 2024년 11월 3,500만 달러에서 1억2,200만 달러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지분자본 유입(배치)이 전년 대비 7,100만 달러에서 1억4,200만 달러로 두 배 증가한 반면, 회수(철회) 금액은 3,600만 달러에서 2,000만 달러로 44.4%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이익 채투자는 6,400만 달러로 집계돼 1년 전 7,400만 달러에서 12.7% 감소했다.



SHEETS of \$5 bills are seen through magnifying glass at Bureau of Engraving and Printing in Washington. — REUTERS

11월 부채성 금융상품에 대한 순투자는 7억1,100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7억9,100만 달러 대비 10.2% 줄었다.

BSP에 따르면, 부채성 금융상품에 대한 순투자는 주로 외국인 직접투자자와 필리핀 내 자회사 또는 계열사 간의 기업 내 차입·대출을 포함한다.

나머지는 비거주 자회사 또는 관계회사가 거주 직접투자자에게 투자하는 형태로, 이른바 ‘역투자(reverse investment)’로 불린다.

SM인베스트먼트(SM Investments Corp.) 그룹의 로버트 댄 J. 로세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FDI 순유입의 전년 대비 거의 변동이 없는 흐름이 안정적이지만 여전히 선별적인 투자 심리를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바이버(Viber) 메시지를 통해 “(이번 수치는) 부진했던 기간 이후 안정세를 보여준다”며 “일부 지연됐던 지분 투자와 이익 채투자가 집행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투자자들이 자금을 철수하기보다는 투자 집행 속도를 조절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11개월 누적 감소

한편, FDI는 11월 말 기준 70억7,700만 달러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의 90억8,400만 달러 대비 22.1%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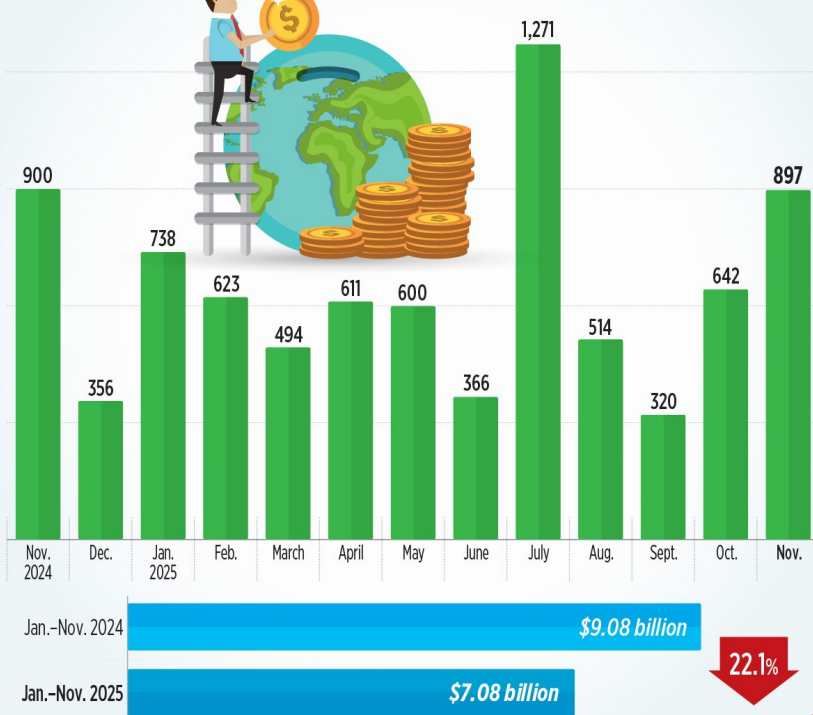
중앙은행은 “2025년 1~11월 동안 지분자본 유입은 주로 일본, 미국, 싱가포르, 한국에서 유입됐으며, 대부분 제조업, 도소매업, 부동산업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밝혔다. [Cont. page 2]

외국인직접투자(FDI) 순유입, 4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

[Cont. from page 1]

Foreign direct investments reach \$897 million in November

Levels (in \$ million)



Source: Bangko Sentral ng Pilipinas (Preliminary data as of Feb. 10, 2026)
BusinessWorld Research: Pierce Oel A. Montalvo BusinessWorld Graphics: Bong R. Fortin

BSP 자료에 따르면, 1~11월 동안 지분 및 투자펀드 지분에 대한 투자는 22억9,700만 달러로 집계돼, 전년 같은 기간의 25억7,600만 달러 대비 10.8% 감소했다.

이는 이익 채투자를 제외한 외국인의 지분자본 순투자가 전년 대비 23.3% 줄어, 14억9,100만 달러에서 11억4,400만 달러로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전체 규모 중 지분자본 유입(배치)은 연간 기준 12.2% 감소해 17억4,100만 달러를 기록한 반면, 회수(철회)는 21.1% 증가해 5억9,6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반면, 11월 말까지의 이익 채투자는 11억5,200만 달러로, 전년의 10억8,500만 달러에서 6.2%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비거주자의 국내 계열사에 대한 부채성 금융상품 순투자는 47억8,000만 달러로, 2024년 11월 기준 65억800만 달러 대비 26.6% 감소했다.

FDI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기업의 지분을 최소 10% 이상 보유하는 투자와, 비거주자회사 또는 관계회사가 거주 직접투자자에게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는 지분자본, 이익 채투자, 또는 차입의 형태로 이뤄질 수 있다.

BSP의 FDI 통계는 실제 투자 흐름을 반영하는 반면, 필리핀 통계청(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의 외국인투자 통계는 일정 기간 내 전액 실현되지 않을 수 있는 투자 약정액을 포함한다.

레이에스 타칸동(Reyes Tacandong & Co.)의 선임 고문 조너선 L. 라벨라스는 1~11월 FDI 순유입 감소가 지난해 투자자들이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였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버(Viber) 메시지를 통해 “이 같은 구성은 필리핀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잃은 것은 아니며, 다만 투자 심리가 더욱 선별적으로 변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라벨라스는 “이번 감소는 글로벌 불확실성, 국내 정책 관련 잡음, 그리고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이웃 국가들과의 경쟁 심화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11월의 반등은 투자자들이 보다 명확한 방향성과 안정성을 확인할 경우 다시 참여하기 시작한다는 신호”라고 덧붙였다.

로세스 이코노미스트는 기업들이 연말에 이익 채투자자 기업 간 대출을 집행할 경우 2025년 말 FDI 유입이 연간 기준 증가세를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이는 투자 심리의 급격한 개선이라기보다 자금 집행 시점에 더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라벨라스는 신뢰할 수 있는 개혁 추진, 불확실성 완화, 신속한 정책 집행이 투자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이러한 명확성을 지속한다면, 11월의 모멘텀을 보다 광범위한 회복세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6/02/11/729701/fdi-net-inflows-hit-4-month-high/>

LEDAC, 공공 신뢰 회복 위한 21개 핵심 법안 승인

February 10, 2026 | Joan Villanueva | Philippine News Agency

마닐라 - **입법-행정부 개발자문위원회(LEDAC)**가 올해 6월까지 통과를 목표로 한 21개 조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거버넌스 강화와 공공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화요일 발표된 보도자료에서 **경제계획개발부(DEPDev)**는 국가적 중요 사안을 다루기 위해 공통입법기관(Common Legislative Agency, CLA)에 포함된 조치 중 두 가지가 아동 온라인 성학대 및 착취 방지법(OSEAC) 개정안과 아동 성학대 및 착취 자료 방지법(CSAEM) 개정안이라고 전했다.

DEPDev는 두 법안이 “법 집행 능력을 강화하고 신기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조치로는 허위정보 및 디지털 허위정보 방지법(Anti-Fake News and Digital Disinformation Act)이 있으며, 이는 “공공질서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악의적·고의적 허위 정보 유포를 처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여행세 폐지(Travel Tax Abolition) 조치도 포함돼 있으며, 이는 여행자의 비용을 줄이고 관광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LEDAC는 방사모로 자치지역(BARMM) 제1차 정기선거 재설정 조치의 즉각적인 승인도 제안했다.

목록에는 정치 가문 방지법(Anti-Political Dynasty Act)과 정당대표제(Party-list System) 개혁안도 포함돼 있으며, 이를 통해 “공직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해 보다 공정하고 포괄적인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의 민주적 절차를 강화” **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또한 독립 인민위원회법(Independent People’s Commission Act)과 은행예금비밀법(Bank Deposits Secrecy Law) 개정안도 포함돼 있으며, 이를 통해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정부 및 금융 부정부행위를 밝혀내는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책임성을 강화하고 부패를 척결”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도 CADENA 법안과 정보공개법(Right to Information Act)이 포함돼 있으며, 이는 “정부 재정 자료 및 정보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대중 접근성을 보장함으로써 거버넌스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도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DEPDev 장관 아르세니오 발리사칸은 “인프라 지출에 대한 더 강력한 감독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예산 과정에서 실시간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정부는 필리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지출되는 모든 폐소가 제대로 활용되도록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고 말했다.

목록에는 에너지, 농업, 수자원, 제정 분야의 자원 관리 개선을 목표로 한 조치들도 포함돼 있다.

발리사칸 장관은 “앞으로 2026년을 우리의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 다시 속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나은 거버넌스와 강력한 공공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공 신뢰를 회복하는 데 단호히 행동해야 하며, 이는 필리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개선으로 이어질 것” 이라고 덧붙였다.



Department of Economy, Planning, and Development Sec. Arsenio Balisacan. (PNA file photo)

1. 국토이용법(National Land Use Act)
2.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소비세(Excise Tax on Single-Use Plastics)
3. 블루 이코노미법(Blue Economy Act)
4. 더 나은 현대적 거버넌스를 위한 점진적 예산법(Progressive Budgeting for Better and Modernized Governance Act)
5. 자금세탁방지법(Anti-Money Laundering Act) 개정안
6. 필리핀 민사등록 및 주요 통계법(Philippine Civil Registration and Vital Statistics Act)
7. 국민건강보장법(Universal Health Care, UHC) 개정안
8. 위기 상황 개인 지원법(Assistance to Individuals in Crisis Situations, AICS Act)
9. 양질의 고등교육 접근성 보장법(Universal Access to Quality Tertiary Education Act) 개정안
10. 교원 전문성법(Teachers Professionalization Act) 개정안
11. 지방자치법(Local Government Code, LGC) 개정안
12. 일반 세금 감면법(General Tax Amnesty)
13. 수산법(Fisheries Code) 개정안
14. 정유산업 규제 완화법(Downstream Oil Industry Deregulation Law) 개정안
15. 바이오연료법(Biofuels Act) 개정안

LEDAC, 공공 신뢰 회복 위한 21개 핵심 법안 승인

[Cont. from page 3]

16. 사이버보안법 (Cybersecurity Act)
17. 국가건축법 (National Building Code) 개정안
18. 중소기업 특별법 (Magna Carta for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MSMEs) 개정안
19. 국민 재통합법 (National Reintegration Bill)
20. 우수 지방정부 인증제 (Seal of Good Local Governance, SGLG) 제편성
21. 디지털 결제법 (Digital Payments Act)
22. 인프라 및 국가개발 마스터플랜 (Masterplan for Infrastructure and National Development, MIND)
23. 공무원의 은행 비밀 포기 의무화
24. 온라인 도박 관련 법 (Law on Online Gambling)
25. 재난 위험 금융보험 (Disaster Risk Financing Insurance)
26. 기반시설 전환 및 개발청 (BCDA) 역량 강화
27. 대통령 장학금 프로그램 (Presidential Merit Scholarship Program)
28. 정부 계약 시 공직자의 4촌 친척 배제
29. 선거에서 소셜미디어, AI 및 인터넷 기술의 공정 사용
30. 출입국관리청 현대화 (Bureau of Immigration Modernization)
31. 바랑가이 특별법 (Magna Carta for Barangays)

Source: <https://www.pna.gov.ph/articles/1268776>

필리핀, 관세 승리로 관계 안정 속 미국과 무역협정 논의 일시 중단

February 10, 2026 | Othel V. Campos | Manila Standard



Philippine Ambassador to the United States Jose Manuel Romualdez (Courtesy: ThisIsAmericaTV/Screenshot via YouTube)

필리핀 주미 대사 호세 마누엘 로무알데즈(Jose Manuel Romualdez)는 화요일, 양국이 관세 관련 협상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워싱턴과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이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밝혔다.

로무알데즈 대사는 양국 간 전반적인 무역 관계가 안정적이라고 전했다. 그는 필리핀 측이 요청한 대부분의 관세 면제 조치가 승인되었으며, 특히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은 필리핀 주요 수출 산업 중 하나로, 대체로 미국 소유 기업들이 필리핀에서 운영하는 분야다.

로무알데즈 대사는 “미국 상무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며, 요청한 면제 대부분이 승인되어 매우 만족스럽다. 이를 통해 필리핀 무역의 균형을 맞추려는 기본 요청이 이미 안정화되었다”고 미국-필리핀 소사이어티가 주최한 연례 필리핀 브리핑에서 밝혔다.

그는 일부 산업에 19% 관세를 부과하려는 이전 제안이 미국 산업계 그룹, 특히 필리핀 반도체·전자산업협회(SEIPI)와의 논의를 촉발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논의는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세 면제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농업 부문 역시 상당한 성과를 보였다. 로무알데즈 대사는 2025년 말 기준, 10억 달러 이상의 필리핀 농산물 수출이 미국 시장에서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면제는 2025년 11월 14일 미국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주요 필리핀 제품에 대한 19% 상호 관세 부과 제안이 철회되었다. 해당 제품에는 코코넛, 바나나, 파인애플, 참치, 열대 과일 주스 등이 포함된다.

로무알데즈 대사는 “결론적으로, 상황은 상당히 안정적이다. 다른 사안들에 대한 논의도 계속 진행 중이지만,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필리핀 상무산업부가 미국 측과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로무알데즈 대사는 필리핀이 아직 공식 협상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아마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닐 것이다. 먼저 현재 관세 관련 합의를 확고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FTA 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논의는 트럼프 행정부 초기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언급했다.

또한 로무알데즈 대사는 최근 필리핀의 입법 개혁이 향후 FTA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개혁에는 토지 임대 기간 연장과 일부 노동 규제 완화 조치가 포함되지만, 그는 여전히 다른 무역 우선 과제가 보다 긴급하다고 강조했다.

Source: <https://manilastandard.net/business/314702174/philippines-pauses-us-trade-pact-talks-as-tariff-wins-stabilize-ties.html>

NRA 제안, 즉각적 해결책으로는 간주되지 않아 — 국세청(BIR)

February 10, 2026 | Aubrey Rose A. Inosante | BusinessWorld



PHILIPPINE STAR/RUSSELL PALMA

국세청(BIR)은 정부 주요 수익 기관을 **국가수익청(NRA)**으로 통합하자는 최근 제안이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당장 시급한 과제는 현행 기관에 대한 신뢰와 공공 신뢰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칼리토 마틴 R. 멘도사 국세청장은 NRA 설립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장기적인 대화의 일부로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2월 9일 비즈니스월드와의 바이버(Viber) 인터뷰에서 “이는 최우선 대응이 아니라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거버넌스 개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재무부 차관 시에로 D. 마그노(Cielo D. Magno)와 아시안 컨설팅 그룹 회장 레이몬드 아브레아(Raymond Abrea)는 국세청(BIR)과 관세청(BoC)의 전면적 개혁, 나아가 정부 소유·관리 기업(GOCC) 형태로 전문적으로 운영되는 국가수익청(NRA) 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

멘도사 국세청장은 이러한 움직임이 수익 관리의 분산과 조정 문제에 대한 오랜 우려를 반영한다고 말했지만, 문제의 핵심은 기관의 형태가 아니라 거버넌스 질(治理品質)에 있다고 강조했다.

2017년 당시 의원이었던 전 대통령 글로리아 마카파갈-아로요(Gloria Macapagal-Arroyo)가 제출한 하원 법안 695(House Bill 695)는 국세청을 대체하고 세금 징수를 간소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멘도사 국세청장은 “보다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개혁 경로는 거버넌스가 가장 중요한 영역에서 강화하는 것이다. 즉, 세수 기관 간의 협력과 데이터 공유를 심화하고, 감사의 완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며, 디지털 기반의 위험 관리 프로세스를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개혁이 갑작스러운 통합으로 인한 불안정성을 초래하지 않고, 개혁 지지자들이 바로잡고자 하는 거버넌스 부족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한다고 덧붙였다.

멘도사 국세청장은 “이러한 거버넌스 개혁의 기반이 없으면, 구조적 통합은 기존 문제를 더 큰 규모로 반복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2026년 정부는 총 4조8,200억 페소의 세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중 3조4,310억 페소는 국세청에서, 1조30억 페소는 관세청에서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6/02/10/729723/nra-proposal-not-considered-immediate-fix-bir/>

부패 수사와 낮은 인프라 투자로 필리핀 경제 회복 불투명 — ANZ

February 11, 2026 | Ian Nicolas P. Cigaral | Philippine Daily Inquirer

마닐라, 필리핀 — 부패 스캔들로 신뢰가 크게 훼손된 이후, 공공 지출이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 한 필리핀의 경제 성장 둔화가 조만간 반등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이는 ANZ 리서치 동남아·인도 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 산제이 마투르(Sanjay Mathur)의 분석에 따른 것이다. 투자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자료에서 그는 2001년 공공 재정 전면 개편 이후 정부 지출이 장기간 약화되고 정체됐던 과거 사례를 상기시켰다.

그는 이번 사례가 더 빨리 해결될지, 아니면 또 다른 장기적 재정 긴축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하며, 공공 인프라 지출이 얼마나 빨리 회복될 수 있을지도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가장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 정부의 인프라 직접 지출은 45.2% 급감한 480억 페소로 나타났으며, 11개월 누적액은 16% 감소한 9,910억 페소로 집계됐다.

예산부는 이번 급락의 원인을 이상한 홍수 방지 사업에 대한 현재 진행 중인 조사로 돌렸으며, 이 조사는 의원, 각료, 국가 기술자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 결과, 2025년 하반기 경제 성장률은 다년간 최저 수준으로 둔화되었고, 마르코스 행정부는 스캔들이 가계와 기업 심리에까지 영향을 미치자 성장 목표치를 축소했다. [Cont. page 6]



Makati central business district

부패 수사와 낮은 인프라 투자로 필리핀 경제 회복 불투명 — ANZ

[Cont. from page 5]

거버넌스 문제

“현재 시점에서 필리핀의 경제 성장이 조만간 개선될지 확신할 수 없다” 고 산제이 마투르 ANZ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를 둘러싼 거버넌스 문제는 정부의 자본 지출 급감뿐만 아니라, 기업과 가계의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고 덧붙였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소비자 지출은 3.8% 증가하며, 전 분기 4.1%에서 다소 둔화됐다.

정부 지출 역시 상승세가 둔화돼, 연초 5.8% 증가에서 3.7% 증가에 그쳤다. 투자(Gross Capital Formation)는 10.9% 감소했다.

흥미롭게도, 순수출은 글로벌 무역 역풍에도 불구하고 밝은 성과를 보였으며, 전체 성장 기여도는 팬데믹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마투르 이코노미스트는 “필리핀과 같이 내수 중심 경제에서 이러한 성장 패턴은 드물다” 고 평가했다.

재정 부양 필요

그는 “현 환경에서는 보다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필수적”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무라 글로벌 마켓 리서치(Nomura Global Markets Research)의 경제학자들은 2026년 상반기까지 경제 성장이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반부패 조치로 인해 정부 지출이 신중하게 집행될 것이라는 점에 따른 것이다. 또한, 지난해 사전 조달 활동(pre-procurement)이 이루어지지 않아 프로젝트 집행이 더욱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경제 성장이 반등하려면 2026년 하반기까지 기다려야 하며, 이는 저조한 기저효과와 정부의 보완 지출 계획 시행에 의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적 환경으로 인한 높은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고 덧붙였다. /dda

Source: <https://business.inquirer.net/573530/philippine-recovery-clouded-by-graft-probe-weak-infrastructure-investment-anz>

아태 지역 전반에서 여행세는 표준 관행 — 티에자 회장

February 12, 2026 | Ma. Stella F. Araldo | BusinessMirror



Tieza COO Mark T. Lapid
(Tieza photo)

출국세 또는 요금(departure levy or fees).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른 국가들이 여행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일컫는 말이다. 필리핀 관광 당국은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의회가 출국세 폐지를 결정할 경우 이를 존중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출국세 수익으로 재원 조달이 이루어졌던 프로젝트를 위한 대체 재원 마련을 당국이 검토하기를 바라고 있다.

관광 인프라·산업단지청(Tourism Infrastructure and Enterprise Zone Authority, Tieza) 마크 T. 라피드(Mark T. Lapid) 최고운영책임자(COO)는 비즈니스미러(BusinessMirror)와의 인터뷰에서,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라오스, 말리, 호주, 일본 등도 필리핀 출국세와 유사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 ‘요금(fees)’ 이나 ‘부과금(levies)’ 이라고 불리지만, 다른 나라에서 징수하는 금액은 필리핀의 출국세와 유사하다. 이는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자에게 부과되는 출국 요금” 이라고 설명했다.

티에자(Tieza)는 관광경제구역 조성 감독하고, 보라카이 섬과 같은 관광지의 상수도 및 배수 시스템과 같은 필수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며, 마젤란 산록지와 번햄 공원,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일로코스 및 세부의 역사적 교회 등 문화유산을 복원하고, 코론, 말라프스쿠아, 다윈(네그로스 오리엔탈) 등 주요 다이빙 지역에 고압 산소 챔버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소유·관리 기업(GOCC)입니다.

필리핀은 일반석 승객에게 1,620페소, 일등석 승객에게 2,700페소의 여행세를 부과합니다. 단, 해외로 출국하는 필리핀 근로자, 정부 장학생, 유아는 여행세를 면제받습니다.

GAA(일반예산법)를 통한 자금 조달

페르디난드 R.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필리핀 여행객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여행세 폐지를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필요한 재원은 일반예산법(GAA)을 통해 확보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See, “Celeste Legaspi sings the blues about El Nido,” in the BusinessMirror, June 8, 2025.) [Cont. page 7]

아태 지역 전반에서 여행세는 표준 관행 — 티에자 회장

[Cont. from page 6]

관광부(DOT) 자료에 따르면, 여행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해외로 여행한 필리핀 국민은 765만 명으로 전년 대비 11.6% 증가했습니다. 이는 2025년에 필리핀을 방문한 외국인 590만 명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하원과 상원의 의원들은 여행세 폐지를 위한 법안을 제안했으며, 해당 법안은 입법·행정 개발 자문위원회(Legislative-Executive Development Advisory Council)에 의해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에게 추천되었습니다. 관광부 장관 크리스티나 가르시아 프라스코는 “DOT는 대통령의 판단과, 여행세와 관련하여 의회가 취하는 모든 입법 조치를 존중합니다. 여행세는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라피드(Lapid) 의원은 “우리는 의원들의 의지를 존중합니다. 여러 중요한 사업들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대체 재원들을 찾아주길 바랍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 주요 사업 중에는 코론(Coron)의 상수도 및 위생 프로젝트가 포함되며, 그는 “엘니도(El Nido)의 타당성 조사를 기다리고 있어, 조사 결과가 나오면 엘니도의 상수도 사업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은 오랫동안 엘니도의 열악한 수질에 불만을 가져왔으며, 생수만 사용하여 음용하고 양치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사에 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See, “Celeste Legaspi sings the blues about El Nido,” in the BusinessMirror, June 8, 2025.)*

산업 분석가들은 또한 여행세를 폐지할 경우, 티에자가 매년 일반예산법(GAA)으로만 예산을 받아야 하므로, 관광 관련 정부 사업의 “긴급 상황” 대응이나 재원 부족 문제에 있어 티에자의 “유연성”이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티에자는 최근 필리핀에서 처음으로 열린 WTA 125급 여성 테니스 대회인 필리핀 여성 오픈(Philippine Women’s Open)을 지원했습니다. 팬데믹 기간에는 정부의 백신 접종 프로그램에도 자금을 제공했다고 분석가들은 덧붙였습니다.

2026년 90억 페소 목표

올해 티에자는 여행세로 약 90억 페소를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중 50%는 운영과 프로젝트에 사용하고, 40%는 고등교육위원회(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 10%는 국가문화예술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Culture and the Arts)에 배분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티에자는 87억 페소의 여행세를 징수했습니다.

한편, 티에자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여행세 현황을 조사했으며, 대부분 관광 인프라 건설과 문화유산 및 환경 보존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 **캄보디아:** 모든 외국인 승객 항공권에 US\$25 포함
- **말레이시아:** 출국세(Departure Levy) RM8~RM150, 항공권 가격에 포함 (공항세 별도)
- **태국:** 2026년 2월부터 외국인 관광객 입국 시 300바트 수수료
- **라오스:** 입국 외국인 및 출국 라오스인에게 LAK 10,000 수수료 부과
- **인도네시아(발리):** 모든 국제 관광객에게 의무적으로 IDR 150,000 부과
- **호주:** 모든 출국 승객에게 A\$60 승객 이동세(Passenger Movement Charge) 부과
- **일본:** 출국하는 여행객에게 국제 관광세 1,000엔 부과, 7월부터 3,000엔으로 인상 예정

Image credits: Tourism Infrastructure and Enterprise Zone Authority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6/02/12/travel-tax-standard-practice-across-aspac-tieza-chief/>

BSP: 하반기 경제 회복 전망

February 12, 2026 | Katherine K. Chan | BusinessWorld

필리핀 경제는 올해 반등할 것으로 보이며, 기업 신뢰도가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필리핀 중앙은행(BSP) 총재 엘리 M. 레몰로나 주니어(Eli M. Remolona, Jr.)가 밝혔습니다.

레몰로나 총재는 수요일 타기그시(Taguig City)에서 열린 필리핀 경영자 협회(Management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MAP) 행사에서 “신뢰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빠르진 않지만, 분명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우리 전망으로는 2026년 하반기에는 경제가 정상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Cont. page 8]



Families spend Christmas Day at Rizal Park in Manila, Dec. 25, 2025. — PHILIPPINE STAR/RYAN BALDEMOR

BSP: 하반기 경제 회복 전망

[Cont. from page 7]

레볼로나 총재는 또한, 부패 스캔들로 인한 신뢰도 상실이 2025년 하반기 필리핀 경제 성장에 제동을 걸었다고 언급했습니다.

2025년 4분기 필리핀 국내총생산(GDP)은 3% 성장에 그쳐, 팬데믹을 제외하면 지난 14년간 가장 느린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홍수 방지 논란 속에서 투자와 지출이 둔화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이로 인해 연간 경제 성장률은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인 4.4%를 기록했으며, 이는 BSP(필리핀 중앙은행)의 4.6% 전망치와 정부의 5.5~6.5% 목표를 밑도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최근 지표들, 예를 들어 S&P 글로벌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와 필리핀 증권거래소 지수(PSEi)는 기업 신뢰도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으며 경제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의 제조업 PMI는 12월 50.2에서 1월 52.9로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PSEi는 수요일 거의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으며, 장중 한때 6,500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PSEi는 0.37% 상승한 24.22포인트 오른 6,498.82로 장을 마감했으며, 이는 2025년 7월 14일 6,525.04로 마감한 이후 거의 7개월 만에 최고 기록입니다.

2026년 BSP는 GDP 성장률을 5.4%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레볼로나 총재는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할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AP 행사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신뢰도 회복과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로 돌아온 것이 중앙은행의 금리 완화 여력을 줄였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BSP가 다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데이터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데이터를 검토해야 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4.5%로, 3년 넘게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통화위원회(Monetary Board)는 2024년 8월 금리 완화 사이클 시작 이후 지금까지 총 200bp(2%) 금리 인하를 단행했으며, 지난해에는 25bp씩 5회 연속 인하를 진행했습니다.

레볼로나 총재는 통화정책 결정에서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가격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이는 신뢰도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1월에는 총체적(Headline) 인플레이션이 2%를 기록하며, 거의 1년 만에 BSP 목표 범위인 2~4%로 돌아왔습니다.

인플레이션

한편, BSP 부총재 제노 로날드 R. 아베노하(Zeno Ronald R. Abenoja)는 총체적(Headline) 인플레이션이 향후 몇 달 동안 3%에 근접하다가 하반기에는 이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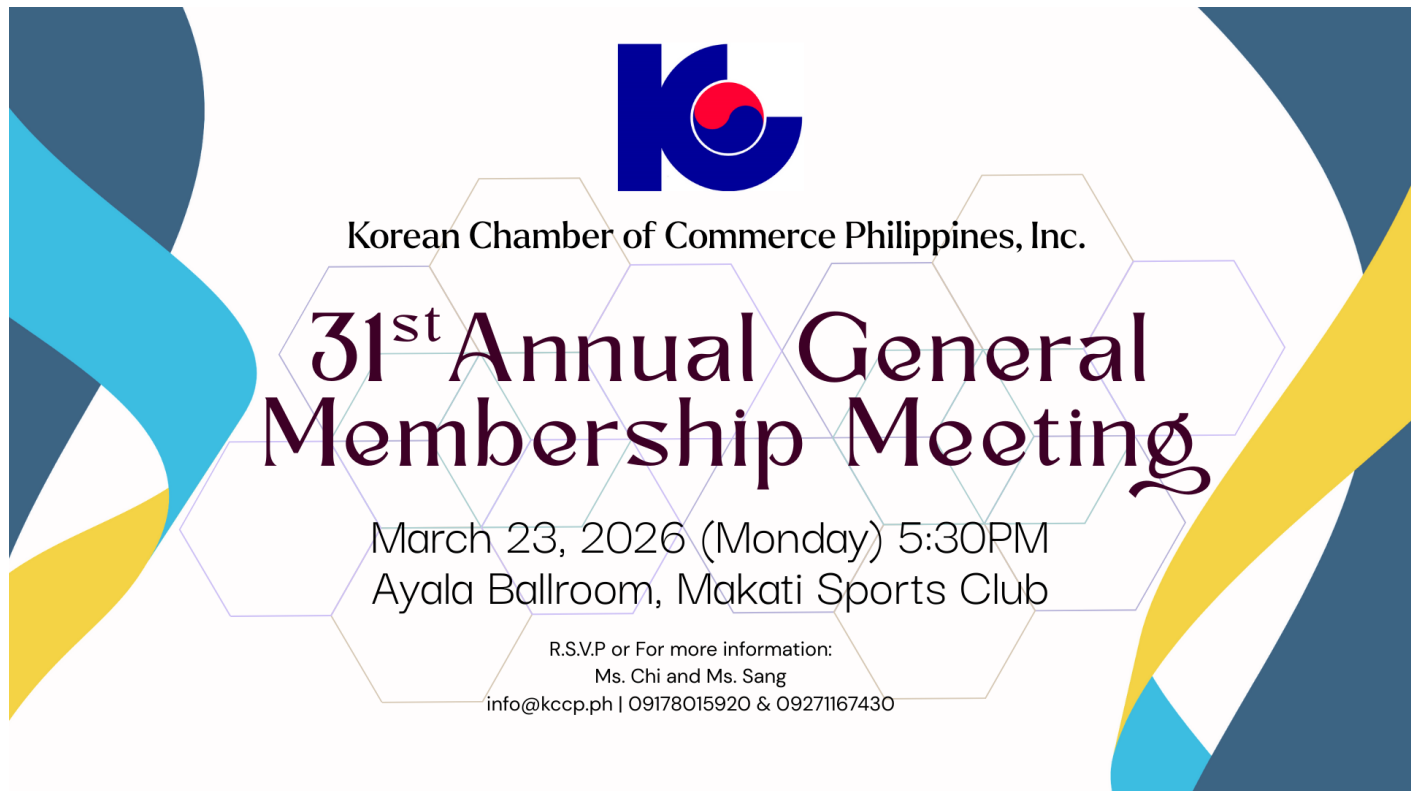
그는 같은 행사 취재진에게 “우리 통화정책보고서(MPR)에서 인플레이션 경로를 보면, 점차 3%에 가까워졌다가 하반기에는 3%를 약간 웃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다시 3% 근처로 돌아와 안정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레볼로나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보다 낮게 나오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3%를 넘는 경우에는 더 우려된다고 언급했습니다.

BSP는 연말 기준 총체적 인플레이션이 평균 3.2%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2027년에는 3%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6/02/12/730004/bsp-economy-to-rebound-by-2nd-half/>

[UPCOMING EVENT] KCCP 제31회 연례 정기 총회 | March 23, 2026



Contact Us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Inc. (KCCP)**
Unit 1104 Antel Corporate Center, 121
Valero St., Salcedo Village, Makati City
(02) 8885 7342 | (02) 8404 3099
info@kccp.ph | www.kccp.ph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200 MW Cebu CFBC Power Plant



ENERGIZING LIVES,
POWERING COMMUNITIES



63.3MW Calatagan Solar Farm